

본연의 나를 찾아서(자기완성)

전찬용 요한보스코 신부 | 예수회



제가 틴스타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남녀의 다른 성(性)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틴스타 수업에서 다루었던 ‘자기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수업 시작 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몇 분이 지나서야 겨우 한두 마디 ‘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정작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경청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은 단지 ‘나’에 대한 이해보다도, 하느님께서 각자 고유하게 창조하신 우리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나’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이쁘다’ ‘못생겼다’ 등 외모의 이해부터 ‘털털하다’, ‘소심하다’ 등의 성격 묘사, 나의 장단점 등. 각자 나름대로 ‘나’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틴스타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self)’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신을 묘사하는 표면적인 내용들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우리 본질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본연의 ‘나’를 알아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도화지에 각자 자신의 나무 한 그루씩을 그리고, 그 가지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① 나의 가치 ② 나의 장점 ③ 나의 약점 ④ 나의 꿈 ⑤ 나의 걱정 ⑥ 내가 변화하고 싶은 것 ⑦ 나의 숨겨진 보물 ⑧ 미지의 가치. 우리는 오랜만에 어렸을 적 가져보았던 동심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나무들을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이 보고 느낀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원들과 나누었습니다. 조원들의 진지함과 진솔함에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살았던 ‘나’ 자신에 대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났을 때, 다른 조원들이 본인이 모르고 있는 ‘본인만의 고유함(달란트)’을 나누어 주었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이해로부터 우리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우리 주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성(性)을 가지고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들,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질감 및 다름에서 오는 갈등 등,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공감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본연의 ‘나’를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여정. 이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좀 더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성(性)을 넘어 하느님 사랑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틴스타 수업을 통해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임을 느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

